

알래스카 LNG, 조선·철강 노리지만... '사업성'은 불투명

쇄빙선 건조가능, 韓 조선 수혜기대 LNG 기자재 등 철강업계도 주목 극지 공사비 부담에 수익성은 의문 "정권 바뀌면 정책 리스크도 커져"

국내 산업계가 미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사업 참여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막대한 투자 비용과 정책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관망세를 유지하는 신중론도 공존하는 분위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5일 우리나라를 방문한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과 면담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등 에너지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우리 기업들의 해당 프로젝트 참여 여부에 이목이 쏠리며 관련 업계에서는 수혜 기대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알래스



삼성중공업 쇄빙선.

/삼성중공업

카 북부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남부 해안으로 운송해 액화한 후 수출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다. 알래스카 남부 부동항인 니키스키까지 1300km에 이르는 가스관 등을 설치해야 하며 총

개발비가 총 387억달러(약 57조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으로는 조선 및 철강 업체들이 꼽힌다. 알래스카의 극한 환경에서 작업 하기 위해서는

쇄빙선이 필수인데 해당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한국, 일본 등 제한적이다. 실제로 한화오션은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노바텍과 계약한 아크7급 쇄빙 LNG 운반선 6척을 건조 중이거나 건조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역시 러시아 조선소 즈베즈다와 쇄빙 LNG운반선 22척 공동 건조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가스관 건설과 LNG 터미널 구축에 대규모 철강재가 필요한 만큼 관련 철강, 강관 업체들도 기회요인으로 삼으려는 분위기다. 파이프, 피팅 등 LNG 플랜트 관련 기자재와 LNG선박 등에 필요한 고강도 철강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낮은 사업성을 지적하며 선부른 기대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우려의 배경에는 높은 인프라 건설 비용이 있다. 알래스카의 극심한 기후환경과 지형적 어려움으로 인

해 송유관 건설비가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287km에 달하는 파이프라인 건설비는 약 200억달러(약 26조원)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는 카타르, 호주 등에서 진행된 LNG프로젝트 대비 초기 투자비가 2~3배 비싼 수준이며 장기적으로도 비용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내 과도한 경쟁도 변수로 지목된다. 미국 멕시코만 연안지역에서 수출되는 LNG는 파이프라인 구축비가 적고 기존 인프라를 활용 가능한 데 비해 알래스카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국내 산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다만 LNG 사업은 최소 20~30년 이상 장기로 추진되는 만큼 정권 교체에 따라 정책 리스크가 크다는 점에서 쉽게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CJ대한통운

쓱닷컴 100% 도착보장 '스타배송' 전담 운영

CJ대한통운이 27일 공식 론칭하는 SSG닷컴의 100% 도착보장서비스 '스타배송'을 전담 운영한다.

양사가 신선식품을 비롯한 장보기 상품 중심의 '쓱 새벽배송'에 이어 비식품·생활용품 중심의 '스타배송'까지 합작하며 이커머스 고객들에게 한층 빠르고 편리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26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G마켓에 이어 SSG닷컴으로 스타배송 도착보장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며 'CJ-신세계 물류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이번 '스타배송' 도착보장서비스 도입을 맞아 CJ대한통운과 SSG닷컴은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스타배송 쓱 오네' 오픈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스타배송 쓱 오네' 오픈 프로모션 첫 구매 고객에 할인 쿠폰 제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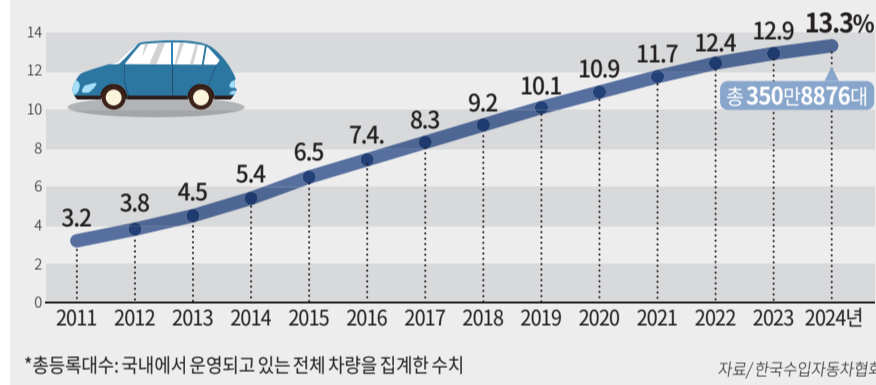
먼저 일주일간 매일 30가지 단독 특가 상품을 스타배송 도착보장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스타딜'을 선보인다. 첫 구매 고객에게는 스타배송 상품 2만원 이상 구매 시 사용 가능한 10% 할인 쿠폰(최대 1만원 할인)을 준다.

풍성한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해당 기간 중 '스타배송' 상품을 1회 이상 구매하고 고객 중 160명을 추첨해 스탠드 TV, 무선청소기, 커피머신 등 인기 가전과 신세계 상품권, 커피 쿠폰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는 '럭키드로우 오네' 이벤트를 진행한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번 협력을 통해 '오네'만의 도착보장서비스 강점을 더욱 많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이커머스 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국내 수입차 총 등록대수 비중



국내 車시장, 수입차 강제 10년 새 6배 넘게 늘었다

국내 등록 수입차 350만대 돌파 전체 車 대비 점유율 13.3% 기록 벤츠·BMW 중심 소비 선택지 확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등록된 수입차가 350만대를 넘어섰다. 이같은 수치는 불과 10년 새 200만대 이상 증가한 것으로 수입차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을 방증한다.

26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수입차는 총 350만 8876대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2629만 7919대) 등록대수의 13.3%다.

지난 2011년 당시 국내에 등록된 수입차는 59만 8558대로 전체 자동차의 3.2% 수준이었다.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2011년보다 6배 성장을 이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6.8%(94만대)로 최다 등록 지역이었고, 서울 19.5%(68만대), 인천 8.8%(31만대), 부산 8.3%(29만대), 경남 6.2%(22만대) 등이 뒤를 이었다. 광역시 단위에서는

인천이 가장 높은 순위였다. 수입차 차량 분석 결과 79.8%가 10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5년 미만은 41.8%(147만대)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10년 미만이 38.0%(133만대), 10년 이상~15년 미만이 15.6%(55만대)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차량은 1%(4만대) 남짓이었다.

국내에서 운행되는 수입차 중 점유율이 가장 높은 승용차 브랜드는 메르세데스-벤츠 22.9%(80만대)였다. 이어 BMW 20.5%(72만대), 아우디 6.6%(23만대), 폭스바겐 6.1%(21만대), 렉서스 4.1%(14만대) 순으로 집계됐다.

볼보 3.5%(12만대), 미니 3.4%(12만대), 토요타 3.2%(11만대), 포드 2.8%(10만대), 테슬라 2.7%(9만대) 등의 브랜드도 10위권에 들었다.

상용차 브랜드는 볼보트럭(1만 8123대)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볼보트럭 점유율은 등록된 전체 수입차의 0.5%, 상용차의 35.8%를 차지했다.

정윤영 KAIDA 부회장은 "지난 30년간 수입차에 새 브랜드와 모델이 계속 등장하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며 "자동차 시장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중기부, M&A 평가비용 2000만원 지원

M&A 활성화 지원사업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M&A 중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중기부는 26일 중소·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지원하는 2025년 M&A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M&A 활성화 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진행해온 사업이다. 올해는 중기부가 지난해 발표한 중소기업 도약전략의 후속조치로, 중개 역할 분담과 지원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본 사업은 M&A 거래정보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M&A 기업가치평가비용 지원확대가 골자다.

주요 내용으로는 ▲M&A 정보망으로 개편 ▲매도희망기업 대상 M&A 기업가치 평가비용 지원 등이다.

그간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모험자본시장의 선순환을 위해 M&A 거래정보망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

번 개편으로 기술보증기금 민관협력 M&A 플랫폼이 본격 가동되면서 M&A 거래정보망은 거래 중개 기능을 종료하고 정보 제공 기능에 집중할 예정이다.

우선 M&A 거래정보망은 M&A 정보망으로 이름을 변경한다. 또 국내외 M&A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등 M&A 접근성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6월 말까지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M&A 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기업가치 평가에 소요된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M&A 정보망과 M&A 파트너스에 등록된 자문기관 또는 매출액 400억이하 중소·벤처기업 등이다.

중소기업은 최대 1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평가 수수료의 40%를, 벤처기업은 최대 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HMM, 신임 대표이사에 최원혁 선임

글로벌 물류업계 40년 이상 경력

국내 최대 규모 해운사 HMM이 글로벌 물류업계에서 40여년 이상 근무한 물류전문가를 새로운 수장으로 맞이한다.

HMM은 26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본사에서 개최된 제49기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최원혁 대표이사(65·사진)를 선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신임 최대표이사는 CJ대한통운, LX판토스 등 글로벌 물류업계에서 40년 이상 근무한 물류전문가다. 3M코리아, 로레알코리아, CJGLS(CJ대한통운) 등을 거쳐 2015년부터 LX판토스에서 근무했다. 2015년 12월 LX판토스 최고경영자



(CEO)로 부임한 뒤 2023년 8년 동안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2019~2023년에는 한국통합물류협회장을 지냈다. 특히 8년간 LX판토스에서 CEO로서 보여준 글로벌 물류에 대한 전문성과 경영역량, 조직관리능력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임 대표이사 선임에 따라 김경배 대표는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최원혁 사장을 비롯해 이점영 컨테이너사업부 전무를 사내이사로 신규선임하고, 서근우 사외이사를 재선임했다. /양성운 기자